

학습 목표

-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을 설명하고 구석기 시대와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 신석기 시대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나타난 생활 모습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지도상의 유의점

- 신석기 시대 유물의 특성이 구석기 시대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 신석기 시대는 주어진 유물을 바탕으로 상상력에 의존하여 재구성된 것임을 인지시킨다.

학습 지도안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자료 및 방법	학습 방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학습 내용 확인 • 학습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해 볼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흥미를 유발시킨다. – 인간은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지금 바로 먹지 않고 곡식을 땅에 묻어 잘 키우면, 몇 달 후 몇 배로 돌려받습니다. 동물을 키워 여러 마리의 새끼를 얻으면 필요할 때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농경과 목축을 터득한 인류의 생활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문답 학습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경과 목축의 시작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간석기 제작 : 신석기 시대의 시작 ② 농경과 목축의 시작 : 자연을 이용하여 식량을 생산 ③ 채집과 사냥, 유목 생활 (2) 평등한 공동체 생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착 생활 ② 움집 거주, 간석기 제작 ③ 농기구 제작 ④ 토기 사용 ⑤ 평등 사회 (3) 만주와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큰 강 유역이나 바닷가에 거주 ② 간석기, 빗살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③ 농경의 증거 : 돌괭이와 돌갈판, 곡식에 눌린 흔적이 있는 토기 (4) 신앙과 예술의 발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연 현상에 관심 ②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③ 예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쪽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인류는 자연에 '순응' 하는 삶에서 자연을 '이용' 하는 삶으로 바뀌었음을 설명하고,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음을 설명한다. • 19쪽 신석기 시대를 재현한 영상을 보며 그들의 생활을 추측한다. 토기 제작과 음식을 끓이는 영상을 보며 토기의 사용이 식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 19쪽 신석기 인들은 생활을 위해 혈연 집단끼리 모여 살았으며, 생산물을 공평하게 나누는 평등사회임을 이해시킨다. • 20쪽 탐구활동 자료 1을 보며 구석기 시대 유물과 신석기 시대 유물을 비교해 본다. 자료 2를 보며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유적지 분포의 차이를 이해시킨다. 특히 신석기 시대에는 농사와 물고기 잡이를 위해 큰 강이나 바닷가에 주로 거주하였음을 설명한다. • 21쪽 농경과 목축 생활을 하던 신석기인들은 자연 현상에 관심이 많았고, 이것이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같은 믿음으로 발달했음을 설명한다. 	<p>강의 학습 발표 학습</p> <p>강의 학습</p> <p>강의 학습</p> <p>강의 학습 자료 학습</p>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내용 확인 • 차시 예고 : 청동기의 사용과 문명의 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쪽 문제 참고 	

1. 농경과 목축의 시작

- (1) 1만 년 전 빙하기의 종료 : 작고 날쌔 동물들을 사냥하거나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간석기 제작 → 신석기 시대의 시작
- (2) 농경과 목축의 시작 : 자연을 이용하여 식량을 생산 → 신석기 혁명
- (3) 지역에 따라 여전히 채집과 사냥을 주로 하거나 유목 생활을 하기도 함

2. 신석기 시대의 생활

- (1) 농경의 시작 : 정착 생활
- (2) 생활 : 움집 거주, 간석기 제작, 어로, 의복 제작
- (3) 농기구 제작 : 돌괭이, 돌보습, 돌갈판
- (4) 토기 : 음식 저장과 조리에 사용
- (5) 혈연을 바탕으로 한 씨족 사회 : 평등 사회

3. 만주와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

- (1)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 : 기원전 8000년경 시작
- (2) 거주지 : 큰 강 유역이나 바닷가
- (3) 도구 : 간석기, 빗살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 (4) 유적지 :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 강원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삼동, 서울 암사동 유적
- (5) 농경의 증거 : 돌괭이와 돌갈판, 곡식에 눌린 흔적이 있는 토기

4. 신앙과 예술 발달

- (1) 농경과 목축 생활을 하던 신석기인 : 자연 현상에 관심
- (2) 애니미즘 : 해와 달, 물, 산 등에 영혼이 있다고 믿음
- (3) 토테미즘 : 특정 동물을 자기 부족의 시조나 수호신으로 생각함
- (4) 샤머니즘 : 무당과 그 주술을 믿음
- (5) 예술 활동 : 흙으로 빚은 얼굴 모습, 조개껍데기 가면, 벽화

학습 자료

생각해 볼까?

교과서 018쪽

두 그림은 북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벽화로 왼쪽은 씨 뿌리는 모습, 오른쪽은 목축하는 신석기 시대의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모두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목축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신석기 혁명

교과서 018쪽

기원전 8000년 전, 빙하기가 끝나자 메소포타미아(현재 이라크) 지역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으며, 사냥을 위해 개를 기르고 소, 양 돼지 등을 식량을 위한 가축으로 삼았다. 이를 시작으로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 인류는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는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른다.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때부터 인간의 경제 생활이 자연 경제에서 생산 경제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기 전에는 먹을 것을 전적으로 '자연'에 의존하였다. 먹을 것을 구하는 방법에 있어 동물보다는 차원이 높았지만, 이미 자연계에서 만들어진 열매나 짐승을 채집하고 사냥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자연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었으며, 이 점에서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먹이사슬'의 한 고리에 불과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의 생활은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면서 인간은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비로소 인간은 자연계에서 독립하였으며, 자연에 인간의 노동력을 가미하여 생산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생산 경제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생존 능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정착 생활도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인류의 발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인간은 오늘날 지구 상에서 '문명'을 창조한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해결
해요

탐구 활동

교과서 020쪽

- 1 예시답안 ㄱ. 주먹도끼(경기 연천 전곡리) : 구석기 시대에 사용되었고, 사냥 시 무기로도 쓰이고 잡을 동물의 고기와 가죽을 자르거나 나무와 뼈 등을 손질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나. 돌갈판(서울 암사동) : 신석기 시대에 주로 농사지었던 조나 기장 같은 곡식을 올려 놓고 갈아 음식을 만들었을 것이다.
 다. 덧무늬 토기(부산 영선동) : 덧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에 가장 먼저 등장한 토기 종류로, 곡식을 저장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등 지금의 그릇 용도와 비슷하였을 것이다.
 라. 가락바퀴(강원 공릉) : 가락바퀴는 실을 뽑을 때 사용하는 방적구의 일종이다. 가운데 뚫려 있는 둥근 구멍에 가락바퀴의 축이 될 막대를 넣고 그 축을 돌려서 실을 꼬아서 뽑았다.
- 2 예시답안 구석기 시대 유적의 이름에는 주로 동굴이 등장하며, 신석기 시대 유적은 주로 바닷가나 강가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토기의 사용

교과서 000쪽

신석기시대의 사람들은 우연한 기회에 점토가 불에 구워지면 단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흙으로 그릇의 형태를 빚고 불에 구워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토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가축이나 동물의 위장을 냄비처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토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요리가 가능해지자 날로 먹게 되면 유해하거나 섭취가 어려웠던 식물자원도 식량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식량자원이 보다 다양해 질 수 있었다. 불확실한 사냥 대신 주변의 다양한 식물자원을 식량으로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식생활의 유지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한곳에 비교적 오랫동안 머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토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제주 한경 고산리에서 발견된 ‘고산리식 토기’이다. 이 토기는 토기를 빚을 때 풀과 같은 유기물을 첨가하여 만들었는데, 구석기시대 석기 제작 기술을 보여 주는 돌 화살촉과 함께 확인되며 기원전 800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학계는 토기의 사용을 신석기 시대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간석기나 농경 생활

의 증거는 없지만 이 토기 덕분에 기원전 8000년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주장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원전 6000년경에서 기원전 3500년경까지 사용되었던 덧무늬토기는 토기의 겉면에 진흙으로 만든 띠를 붙여 다양한 장식을 한 토기로 부산, 통영,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해안을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의 양양과 고성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기원전 4500년경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뒤, 기원전 3500년경 한반도 전 지역으로 확산된 빗살무늬 토기는 바닥이 뾰족한 포탄 모양의 형태를 하고 토기 겉면은 점과 선으로 구성된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장식된 토기이다. 사선의 무늬는 토기가 갈라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 빗살무늬 토기는 이전의 토기들에 비해 넓은 분포권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된 대표적인 토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를 빗살무늬 토기 문화라 부르기도 한다.

참고 자료

- KBS, HD역사스페셜 2편(2005년 5월 20일 방영) 신석기인들 바다를 건너다

